

# 이광수 복권과 문학사 기술의 관련 양상

공 임 순\*

## 차례

1. ‘이광수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
2. 피랍과 미귀환의 상징, 반공인사 ‘이광수’의 복권
3. 문학사 기술과 근대적 기원, 그 편년사의 유혹
4. 이광수 복권의 딜레마와 남겨진 문제들 — 결론을 대신 하며

## ■ 국문초록

2016년 문협(한국문인협회)은 좌절되기는 했지만 최남선과 이광수 문학상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여 한 차례 논란을 빚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이광수는 김구와 더불어 그 네이밍(naming)이 문제되는 드문 인물 중의 하나일 것이다. 최인훈은 1966년 연재된 『서유기』에서 작중인물의 상상과 관념을 빌려 이광수를 등장시킨다. 여기서 그는 『흙』의 허송의 삶을 이광수 자신이 식민지 말기에 직접 구현했다는 제국 헌병의 논리에 맞서 『흙』의 속편을 자신이 썼어야 했다는 이광수의 자기 참회와 고백을 선보인다. 이광수가 소위 말했다고 가정되는 『흙』의 속편이란 한국 사회의 두 문제되는 인물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530).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이기도 한 김구가 있는 상해행의 티켓이었으며, 이 티켓은 지식인이 머물 자리를 실현된 과거(친일)에 대비되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형의 과거(항일 또는 망명)로서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광수의 친일 문제와 결부된 1장의 ‘이광수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들을 형성한다.

2장은 이광수 복권이 어떠한 역사적 경로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를 피랍(납북)과 미귀환으로 독파해보았다. 정전협정(1953)-제네바회담(1954)-국제적십자사를 통한 피랍(납북)자 명단 통보와 답지(1956-1957)의 전 세계적인 흐름과 결을 같이 하는 속에서, 이광수는 반공의 상징이자 미귀환의 표상으로 한국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었다. 1962년 삼중당의 『이광수전집』 간행을 계기로 한 작가(문인) 이미지의 강화는 1968년 신문학 60주년을 맞아 분출된 문학사 기술과 맞물려 이광수 복권을 정당화하는 물꼬를 터주었다. 이것이 문학적 공(功)과 정치적 과(過)라고 하는 이분법을 생성하는 이른바 문학사 기술의 편년사적 유혹이다. 신문학 60주년에 상응하는 문학사 기술이란 결국 과거를 확정하려는 전도된 ‘기원적 현재(originary present)’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것이 그 기원이자 원년의 자리에 최남선과 함께 이광수를 끊임없이 되돌리려는 왕복운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광수 복권을 포함한 ‘이광수적인 것’의 물음과 쟁점이란 문학사 기술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자기 강박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심문함과 동시에 탈근대의 지평을 담지한 자기 성찰과 모색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결론 삼아 제시했다.

- **주제어** : 이광수 복권, 피랍(납북)과 미귀환, 최인훈의 『서유기』와 이광수, 신문학 60주년, 편년사의 유혹, 문학사 기술의 전도된 기원, 김현, 백낙청, 육당과 춘원 문학상

## 1. ‘이광수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

“만지면 만질수록 그 증세가 덧나는 상처”라는 이광수에 대한 인상적인 구절을 남긴 사람은 창비와 더불어 2대 계간지의 시대를 연 문지의 핵심 동인 김현이었다. 저명한 불문학자이자 평론가로서 비록 편저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한 작가를 타이틀로 내건 대단히 드문 저서라는 점도 또한 인상 깊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 작가를 타이틀로 한 그의 저서의 첫 일성이 “만지면 만질수록 그 증세가 덧나는 상처”인 것은 여러모로 개운치 않은 뒷맛을 안겨준다. 이광수 자체가 아니라 이광수를 말하는 자신, 즉 이광수를 발화하는 주체의 곤혹스러움이 이 표현에는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지면 만질수록 그 증세가 덧나는 상처”<sup>1)</sup>가 결국 가 닿게 되는 곳은 이광수라는 한 개인의 역정이라기보다는 그를 통해 말해야만 하는 아니 말할 수 밖에 없는 발화주체의 자기 고백 내지 토로임은 이로부터 연유한다 하겠다.

이와 연관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텍스트가 최인훈의 『서유기』이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 4·19와 함께 그해를 이룬바 ‘광장의 해’로 기억시킨 1960년대 대표작가 중의 한 사람인 최인훈은 1966년 6월부터 『문학』에 「서유기」를 연재하기 시작한다. 그는 이후 “『광장』-『회색인』-『서유기』-『소설가 구보씨의 일일』-『태풍』을 결과적인 5부작으로 읽혀지기를 바란다”<sup>2)</sup>는 말로 『광장』에 이어지는 연작의 형식 속에 『서유기』를 위치시켰다. 특히 “『서유기』는 『회색인』의 속편으로 쓴”(24) 것이라는 그의 지적은 『서유기』를 『회색인』의 후속편으로 간주되게끔 했는데, 그의 작품들이 지닌 이 연작의 형식들이야말로 『총독의 소리』(1~4)를 비롯해서 그의 작품세계를 특

- 
- 1) 김현, 「이광수문학의 전반적 검토」, 김현 편저, 『이광수』, 문학과지성사, 1977, 11쪽. 김현의 이 표현은 이광수 논의에 자주 회자되는 인상적인 구절이다. 필자 역시 서두를 이 인상적인 구절로 시작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며, 그가 던져준 지식인의 조건과 한계를 곱씹고 있음을 밝혀둔다.
  - 2) 최인훈, 「원시인이 되기 위한 문명한 의식」, 『길에 관한 명상』, 최인훈전집 13, 문학과지성사, 2010, 29쪽.

징짓는 일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서유기』가 지닌 형식적 변별성은 분명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이광수’와 직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최인훈이 언급한 일련의 연작들 속에 드리워진 이광수의 짙은 그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이 필요하지만, 이광수를 간접화했던 여타의 작품들과 비교하면 『서유기』는 이광수를 작품의 전면에 배치하는 서사적 파격을 보여준다. 그것이 주인공 독고준의 상상 속 관념의 의장을 빌린 것이라 해도, 이광수가 직접 등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발화까지 하는 장면은 곧 최인훈이 ‘이광수’의 무엇을 어떻게 문제 삼고자 했는지에 대한 가시적 증좌이자 바로미터에 다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인공 독고준을 근저에서 추동하는 상해 임시정부의 간헐적(목)소리와 대비되는, 말하자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교차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예문은 만약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광수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을 내포하는 것이다.

[1] 허승은 모세이며 집단 망명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압록강을 건너서 망명하지 않고 살여울로 망명했던 것입니다. 살여울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대신에 나일강을 건너서 카이로로 망명한 모세입니다. 이것이 『흙』의 세계지요. …… 카이로로 망명했으니 유대 백성이 살 길은 결국 바로 왕의 신하가 되어 빨리 이집트에 동화하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 결국 『흙』의 속편은 선생님께서 몸소 실연(방점은 필자, 이후 동일)해 보이신 것이죠. 작은 갑이도 군대 갔다 오나라. 큰 갑이도 징용 가고, 유순이는 정신대로 가거라. 살여울 사람들아. 이집트 이름으로 고쳐라. …… 국내에 망명한 이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길을 끝까지 갔으니 논리적이고 백성을 사랑하는 길을 버리지 않았으니 조선의 애국자였습니다. …… 저 만주 벌판의 비적들과 상해 뒷골목의 정치깡패들이 선생님의 충정도 모르고 선생님이 사랑하신 조선 민중에게 해로운 일만 골라서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

3) 최인훈, 『서유기』, 최인훈전집 3, 문학과지성사, 1977, 187~191쪽.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일본 헌병과 이광수와의 관계 설정은 1942년 『문학계(文學界)』의 「행자」(이광수,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II』, 이경훈 편역, 평민사, 1995)와 겹쳐지는 일면이 있다. 독자를 향한 말 걸기는 총동원체제 이후 이광수가 자주 쓴

[2] 나는 결국 정치가가 못 되었소. 못 되었으면 예술가답게 입을 다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군. 예술가가 현실을 똑바로 보지 말란 법이 없소. 그렇군요. 나는 『흙』의 속편을 쓰는 것이 옳았소. 허송이 왜경의 등쌀에 배겨나지 못하고 결국 상해로 가는 이야기를 썼어야 옳았소. 그곳에서 새로운 운명과 싸우는 모습을 그려야 했소. 그런 사람들이 실지로 있었으니. 그런 속편을 썼다면 나는 감옥에 들어갔을 것이오. 나는 죽었을지도 모르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을 용기가 없었던 것이오. 그러나 국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일본의 천하가 되어가는 줄로만 안 사람으로서는 그 길 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소, 내가 국내에 있었다는 것 부터가 나뻐소. 나는 3·1만세 당시에 망명했어야 옳았을 것이오. (202)

여기서 굳이 이광수가 아니라 ‘이광수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광수라는 한 개인에 대한 찬부를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위 예문 1과 2가 보여주듯이 이광수는 그의 작품세계 속의 인물과 별개로 이야기되지 않는다. 오히려 『흙』의 허송이 이광수를 대리하는 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흙』의 허송과 이광수가 겹치지며 『흙』의 속편을 이광수가 몸소 실현했다는 일본제국의 헌병에 맞서는 논리로 이광수가 내세운 것은 자신이 『흙』의 속편을 썼어야 한다는 뒤늦은 자책과 과오이다. 물론 이 두 사람이 말하는 『흙』의 속편의 함의와 지향은 다르다. 『흙』의 속편을 이미 이광수가 상연했다는 과거형 진술은 “허송이 왜경의 등쌀에 배겨나지 못하고 결국 상해로 가는” 미래형의 진술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형과 실현되지 않는 미래형 사이에서, 『흙』의 허송과 이광수는 불가분의 관계로 뒤얽히며 소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광수적인 것’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965년 최인훈은 「서유기」의 발표에 한 해 앞선 시점에서, 「문학은 현실 비판이다」라는 글을 『사상계』에 게재한다. 여기에서 그는 근대 이후 문학에

---

기법 중 하나인데, 「행자」는 자신을 행자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그를 지도하는 스승의 자리를 만들어놓는다. 이 자리는 일본 정신의 생래적 체득자인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텅 빈 대주체의 자리였다. 이를 비튼 것이 「서유기」라면, 그는 이광수의 작품을 통해 이광수의 다시 쓰기를 행하고 있는 셈이고, 이런 점에서 1960년대 절정을 이룬 최인훈의 ‘이광수’ 논의는 재론의 여지를 남긴다.

술은 현실 참여의 필연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며, 이 현실 참여의 방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역사의 지평을 닫힌 것으로 간주하고 환상의 초월 속”에 머무르다 결국 “간헐 사회의 종교처럼 현실긍정의 기능”을 하는 문학예술과 “자기 매제(媒材)인 언어의 현실 절박성을 십자가로서 인수하고 현실의 각각의 변동에 스스로를 맡김으로써 불리한 조건을 역용”하여 “인간을 미래로 열려진 지평으로 인식”<sup>4)</sup>하는 문학예술의 두 갈래 길이 그것이다. 『흙』의 속편을 이미 완료된 것으로 하는 닫힌 역사의 지평(일본 헌병의 발화)과 임정이 있는 “상해로 가는” 열린 미래의 지평(이광수의 발화)은 그가 의미하는 문학예술의 두 선택지와 맞물리며, 최인훈의 ‘이광수적인 것’을 구성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1964년 10월에 김현은 『세대』를 통해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흙」과 「상록수」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이 글에서 김현은 『흙』의 허승이 시혜적 의식에 사로잡힌 위선과 기만의 인물일 뿐임을 꼬집게 된다. “시혜적 의식, 귀족주의적인 생각이 뿌리깊이 그의 속에 박혀” “자기의 에고이즘을 미화시켜줄 수 있는 어떤 아주 비열한 행위”로 그는 “농촌운동”을 택했다는 것이다. 허승이 펼치는 이러한 작위와 위선의 드라마에서, 허승은 정작 “현실과 대결하는” “진정한 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생”의 체현자로 규정되고 마는데, 『흙』의 허승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자기를 남의 위에 놓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시혜적 태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는 항상 옳다는 신념”<sup>5)</sup>의 근시안적 인물로 이광수를 평가하는 한 잣대가 된다. 이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개인적 윤리가 사회적 윤리로 어느덧 환치되고 그것은 어느덧 인류를 위한 행위로 변모하는 기막힌 논리의 곡예”<sup>6)</sup>(29)사가

4) 최인훈, 「문학은 현실비판이다」, 『사상계』, 1965.10, 282쪽.

5) 김현,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 『세대』, 1964.10, 149~152쪽.

6)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4」, 『문학과 지성』, 1972. 겨울, 907쪽. 이와 동일한 내용이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에 전재되었고 전술한 김현 편저의 『이광수』에 재수록되었다. 따라서 『한국문학사』의 「서언」에서도 밝혔듯이 이광수의 『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송옥의 견해를 빌린 김현의 비판적 관점이 적극 반

다름 아닌 이광수였다는 평가가 또한 가능해진다.

1965년 1월 27일자 『경향신문』은 「배고픈 독서군」이라는 기사를 내보낸다. 이 기사 내용은 요새 말로 대학생들이 통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자료로 제시된 것이 “세칭 일류대학의 4학년생 가운데 10여권의 책(전공서)을 읽었다는 무리는 41%에 불과”했고 “교양서적으로 제일 으뜸가는 독서량은 15권정도. 그것도 15% 학생만의 얘기”라는 독서량에 더해 “교양서적의 내용을 점검하면 더 실망이 커”진다고 하는 교양서적의 리스트였다. 이 기사가 밝힌 교양서적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았다. “이광수의 『흙』, 토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나관중의 『삼국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었다. “이것이 베스트 리딩”<sup>7)</sup>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 뒤섞인 현 대학생들의 질적 수준 저하에 대한 우려 속에서, 그 첫머리에 놓인 것은 보다시피 이광수의 『흙』이었다.

1960년대 급진적 저항 담론의 산실로 통했던 잡지 『청맥』은 “흙에 전 생애를 바치는 「상록수」의 채영신”을 단순히 “하나의 소설의 주인공”이라거나 “공상 속의 인물” 내지 “기괴한 허구의 세계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동포, 우리 농민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고 간 선구자”<sup>8)</sup> 중 한 명으로 한국의 능동인상의 첫 번째 인물로 꼽았는가 하면, 권보드래가 적절하게 인용했듯이 동국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던 중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곤봉에 맞아 1965년 4월 13일에 숨진 김중배는 “남달리 학업에만 열중하시던 농민의 아들로써 장차 농촌의 기수가 될 푸른 꿈을 키우며 이광수의 『무정』을 수십 번 독파”<sup>9)</sup>하던 이른바 『경향신

---

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7) 「배고픈 독서군」, 『경향신문』, 1965.1.27.

8) 권용태, 「한국의 능동인 ①—「상록수」의 「채영신」, 『청맥』, 1966.10, 137~138쪽. 이 외에도 『청맥』은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광수의 『흙』을 대신해서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인 채영신을 담론장으로 호출하거나 전유한다. 박정자, 「서세(西勢)에 물리는 윤리—가치 기준은 ‘자본’과 ‘성」, 『청맥』, 1964.11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넓게 보면 『상록수』 역시 『흙』의 자장과 범주 내에서 유통하고 있었다.

9) 권보드래, 「저개발의 멜로, 저개발의 송고」, 박현호 편저, 『센티멘탈 이광수』, 소

문』이 전하고 있는 교양서적의 술한 대학생 독자들 중 한 명이었다. 이광수  
 붐의 절정기로 여겨지는 1960년대 중후반을 공히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일화들  
 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광수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들을 함축하  
 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광수적인 것’이 갖는 역사적이고 현재적인 의미  
 를 더듬어보는 것, 이것은 2016년 문협의 최남선과 이광수 문학상 제정을  
 두고 벌어진 한국 사회의 첨예한 논쟁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sup>10)</sup>  
 우리에게 ‘이광수적인 것’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경로와 과정  
 을 밟아왔는지를 살피는 시론으로 이 글은 자리한다.

## 2. 피랍과 미귀환의 상징, 반공인사 ‘이광수’의 복권

1956년 한국 사회는 피랍(납치)인사의 송환 문제로 한차례 흥역을 치른  
 다.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  
 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즉 휴전협정으로도 불리는 정전협정이 체결됨  
 으로써 3년여를 끌어오던 한국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군사협정으로  
 만 시종한 정전협정의 불완전한 성격으로 인해, 1954년에 정치회담의 성격  
 을 띤 제네바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제네바회담은 한국전쟁의 두 당사자인  
 남북한의 대표자들도 참석했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상호간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정전협정(1953)으로 해소되지 못한 한반도 문제를 최종 해결할 목적하에

---

명출판, 2013, 306쪽. 원문은 6·3동지회, 『고 김중배 열사의 영전에 바치는 추도  
 사』, 『6·3학생운동사』, 역사비평사, 2001, 631~632쪽.

10) 2016년 7월 26일 문협(한국문인협회의 약칭)은 이사회에서 최남선, 이광수 문학  
 상 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문협이 내세운 논리는 1968년 신문학 60주년을 맞  
 아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사적 공적을 기념할 때의 논리와 흡사하다. 후술하겠  
 지만, 문학사와 친일은 구분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은 비단 현재에만 그치  
 지 않는다. 어떠한 근거와 맥락에서 이러한 주장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다.

개최된 제네바회담(1954)의 결렬은 여러 미해결의 문제들을 한반도에 남겨 놓게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피랍(납북)인사들의 송환 문제였다. 이 피랍(납북)인사들의 송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조건으로 휴전 반대를 압박하고 나선 이승만정권의 의도와 결부되어 정전협정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사안이었다. 이것이 제네바회담을 통해서 비로소 공론화 될 수 있었던 셈인데, 제네바회담의 별 성과 없는 종결로 인해 이 문제는 다시 잠복하고 마는 결과를 빚어냈다.

“우리 정부는 당초부터 휴전 반대의 기본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만큼 휴전과 관련성이 있는 피랍인 송환 문제를 끄집어낼 단계”에 있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국책은 북진통일이었고 그것을 요구하는 마당”에 “지엽적이라기보다 기본 국책의 궤도에서 논리적으로 벗어난 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요한의 지적도 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UN총회석상에서 이 문제는 정식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적극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령”으로 “‘잊혀버렸던 그들’의 문제가 비로소 세계의 양심 위에 뚜렷이 현상”<sup>11)</sup>되는 반전의 계기가 찾아왔다. 제네바회담에서 이월된 이 문제가 UN총회를 거쳐 마침내 국제적십자사의 손으로 넘어간 1956년을 기점으로 해서였다. 어느 신문기사의 제목처럼, 이 문제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다.<sup>12)</sup> 무엇보다 이 문제는 공산진영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한 반공 선전의 호(好)소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이 정권 차원에서 행해졌다. 피랍(납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도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는 그제서야 부랴부랴 명부 작성을 위한 신고 접수를 받는 등, 행정의 난맥상 끝에 피랍(납북)인사의 첫 명단이 국제적십자사로 발송되었다. 일차 분 50명의 명단이 그것인데, 이 50명의 명단 안에 이광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11) 주요한, 「피랍인사문제, 여섯 번째의 겨울은 닥쳐오는데」, 『경향신문』, 1955.11.23.

12) 「피랍인사 송환에 새로운 서광」, 『경향신문』, 1956.5.11.

“이광수, 백인제, 최린 등”<sup>13)</sup> 50명의 명단에 앞자리를 차지한 것은 이광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소위 생존자 명단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서 한국에 보내오게 되는데, 이 생존자 명단이라는 것이 대한적십자사가 신고 접수와 함께 작성한 총 7,034명과 비교하면 “이십분의 일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 337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국가 차원의 중요도를 반영했을 터인 1차분 50명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일반이 알고 있는 지명(知名)의 인사는 두어 사람밖에 별로 눈에 띄지 않”<sup>14)</sup>는 관계로 그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남한의 절실함과는 결을 달리하는 북한 측의 이 무성의한 생존자 명단은 지금까지 유가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사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의 활동을 전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로 재인식시키는 결정적인 변형점이 되었다. 1950년대 내내 피랍(납북)인사의 송환은 문제시되었다지만, 1956년을 기점으로 한 이와 같은 남북한 정권의 힘겨루기 속에서 피랍(납북)인사는 가족과 지인에 그치지 않는 “북진을 개시할 명분이 서고 국제연합은 도의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을 것”<sup>15)</sup>이라는 남한 사회의 영원한 미해결의 문제로 남을지도 모른다는 광범위한 분노와 좌절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피랍=미귀환의 인사들에 대한 기념과 추모의 밑바탕이 되었음도 물론이다.

〈자료 1〉과 〈자료 2〉에서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후의 전달 명단보다 1차 명단이 갖는 상징적 중요성 못지않게 이들이 적어도 용공의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일 것이다. 명단 작성 시부터 북한 체제에 협력(자진 월북이나 부역 및 활동)했다고 의심받는 자들에 대한 엄격한 배제와 분리의 원칙은 곧 사상 검증의 필터로 이 명단이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중의 효력을 거두게 된다. 첫째 북한에까지 통보된 이 명단의 인물들은 적어도 이들이 북한 체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며, 둘째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 ‘됨’을 보증하는 반공의 인사들이라는 것이었다. 일종의 부재하는 신원 증명의 역할을 담당한 이 명단의 공개적 명시는 월경의 불투명

13) 「1차로 50명분 발송」, 『경향신문』, 1956.6.29.

14) 「형설수설」, 『동아일보』, 1957.11.20.

15) 「유엔은 납치인사문제를 방입말라」, 『동아일보』, 1955.11.30.

# 拉致人士名單

● 國際赤十字社에 安否探知를 依頼한것 ●  
(六月30日現在)

一六	金建業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七	金建業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八	朴英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八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八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자료 1〉 국제적십자사에 보낸 피랍인사 1차 명단

**拉致人士名單**

● 國際赤十字社에 安否探知를 依頼한것 ●  
(六月30日現在)

一六 金建業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七 金建業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八 朴英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八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八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失望 말고 기다리세요**  
...다들 同報 入부되는데도 公公...  
赤十字社 蔡昌核總裁談

拉致人士名單

● 國際赤十字社에 安否探知를 依頼한것 ●  
(六月30日現在)

一六 金建業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七 金建業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八 朴英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一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八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二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八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三九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〇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一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二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三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四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五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六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四七 李炳熙 赤十字社 濟南本部

〈자료 2〉 북한이 보낸 337명의 생존자 명단

한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었던 저간의 배경이었다.

1956년의 피랍(납북)자 송환 문제가 갖는 의미란 이 맥락에서 찾아져야 하며, 동시에 국가가 보증하고 걸러낸 이른바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의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일련의 사회적 특권과 교환가치의 은행계좌”<sup>16)</sup>로 이 피랍(납북)자 명단이 기능했음을 짐작케 한다. 더불어 피랍(납북)인사들이 주축이 된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북측 공세는 “피납치자들 가운데서 살아 있으리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백의 한 사람이 될까 말까 생각”<sup>17)</sup>된다는 남측의 대응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와 맞물리며, 상호간 경쟁과 대결 속에서 이광수를 한국 사회의 공적인 승인과 합법화의 주역으로 재등장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셈이었다.<sup>18)</sup>

1956년을 기화로 한 이광수의 이러한 공적 승인과 합법화에는 이광수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근친의 그리움을 담아 전하는 수기와 회고 및 자전적 기록들의 사적 그물망들이 한몫을 담당했다. 왜냐하면 이 사적인 기록의 서사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광수의 공적인 초상이 일정한 패턴을 지닌 채 반복 재생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정화의 『아버님 춘원』이 대표하는 육친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한과 전영택 및 김소운과

---

16)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국민주의의 포이에시스』, 이규수 역, 창비, 2003, 197쪽.

17) 『횡설수설』, 『동아일보』, 앞의 기사. ‘현대사실록’의 표제 아래 신경완 증언, 이태호, 『압록강변의 겨울—납북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 다섯수레, 1991, 370쪽은 “그 사람(피랍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거나 죽었다고 악선전하던 이승만 정권에 큰 타격”을 주는 차원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조직했음을 밝히는 진술이 등장한다. 제네바회담에서 중국이 제시한 평화공존의 방침과 호응하는 북한의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결성은 이 피랍(납북) 문제가 양 체제간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려준다.

18) 이광수가 한국 사회의 반공인사로 환영되었던 데 반해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인물들은 제대로 평가되거나 백안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이러한 피랍(납북)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의 경쟁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낸 분단의 또 다른 풍경이다. 이는 일본 패전 이후 인양과 귀환 및 북송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지역 구도와도 짝매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 위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를 기약한다.

방인근 등의 개인적 회고담들 또한 이광수의 부재에 대한 몇 가지 정형을 재구축하게 된다.<sup>19)</sup> 이를테면 가족 외의 사람들은 알기 힘든 자상한 아버지의 형상과 같은 보편적인 인간 심리와 상통하면서도 구체적인 세부까지는 접근할 수 없는 전형적 가족 서사가 그러할 터였다.

이러한 가족 서사의 주된 줄기는 자상한 아버지/남편의 부당한 상실에 있다. 그런데 이 자상한 아버지/남편의 상실이 대한민국의 국시인 반공의 외적 타자라 할 공산주의자들의 부당한 폭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는 이것만으로도 다시 부활할 가치가 있다는 논리가 탄력을 받게 된다. 이른바 한국 사회 특유의 반공가족주의와도 직결된 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광수는 반공의 최전선으로 설 수 있는 추동력이 만들어진다. 이 집약된 결과물이 기존 논의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1969년의 개봉작 <춘원 이광수>이다.<sup>20)</sup> <춘원 이광수>는 부당하게 빼앗긴 자상한 아버지/남편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그 하부 화소들을 반공과 관련된 것으로 채워나가는 전형적인 반공 담론의 양상을 띤다. 자아비판을 겸한 자술서를 강요하는 북한 괴뢰장교와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그를 끌고 가는 장면 및 이 잡혀가는 아버지를 괴뢰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붙드는 장면들이 반공의 하부 화소들로 기능한다. 따라서 영화 대본에서 “괴뢰장교 A와 B”로 기술되고 있는 두 “괴뢰장교 A와 B” 중 한 사람이 북한의 혁명영웅 칭호를 받은 시인 이찬(또는 리찬)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sup>21)</sup> 다만 부당하게 빼

19) 이광수 복권과 관련된 사적 증언 서사와 문학계의 필요성 및 서복지식인 그룹인 『사상계』의 합작으로 이를 살핀 논의로는 안서현, 「흔들리는 이름」, 『상허학보』, 2015가 있다. 이 논문에서 이광수는 그리운 아버지라는 사적 차원과 울음의 지식인이라는 공적 차원이 합쳐진 일종의 감성의 대명사로 자리잡는다. 이러한 감성—미학의 체제는 곧 이광수의 복권을 떠받치는 반공 기제와 접합하며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애달픔의 정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논문의 지적이기도 하다.

20) 영화 <춘원 이광수>에 대한 논의로는 권명아, 「문예영화와 공유기억(commemoration) 만들기」, 『한국문학연구』, 2003과 박유하, 「민족계몽과 예술지상주의 사이」, 『한민족문화연구』, 2014가 대표적이다.

21) 광학송 원작·각본, 윤색 이철향, 「<춘원 이광수> 심의본」, 문화공보부, 1968, Scene 132~138. 더불어 최인현, 영화 <춘원 이광수>, 대한연합영화사, 1969를 참



영화 <춘원 이광수>의 타이틀 신



영화 <춘원 이광수>의 대단원을 이루는 피랍 신

얇긴 자상한 아버지/남편과 대척점에서, 이들이 반공의 하부 화소들로 기능한다는 점이 중요할 뿐이며, 이것이 또한 계광순과 조철을 포함해 이광수의 최후를 전하는 탈출 및 귀순자의 서사와 상호 연동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이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거쳐 이광수는 “유교 집안에 태어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세계를 거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아온 내가 이제 유물사관을 신봉한다면 당신은 믿겠소.”<sup>22)</sup>라고 하는 반공인사의 명확한 표

조했다. 이광수를 데려간 북한군 장교가 북의 혁명시인 칭호를 받은 이찬(리찬)이라는 것은 「민족통신」을 인용한 「김일성 폐렴 앓던 이광수에게 특별절차 보내」, 『경향신문』, 2015.7.2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2) 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497쪽. 이 언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 계광순은 이광수를 평양 감옥에서 보았

징을 얻게 되는 것이다.

피랍(납북)당한 자상한 아버지/납편의 초상을 한편으로, 다른 한편에서 주요한을 위시한 문단 및 문학계 인사들에 의해 이광수는 돌이킬 수 없는 민족(국가)적 손실로 규정되는 상실의 물신화도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부재함으로써 신성화·절대화되는 부재의 현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6년 대대적인 피랍(납북)인사의 송환 문제가 단지 337명이라는 별 소득 없는 생존자 명단을 손에 쥐는 것으로 끝났을 때, 그의 미귀환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져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그의 미귀환이란 일차적으로 죽음과 가까운 것이었지만, 더 정확히는 한국 사회로 그가 귀환할 길이 막혔다는 분단 현실이 반영된 냉정한 시선의 발로이기도 했다. 이러한 미귀환을 딛고, 사상계사는 ‘육당과 춘원의 밤’을 1957년 11월에 개최하는 모험을 감행하게 된다.

“후에 들은 말로 하면 사상계사가 그 모임을 열 계획을 할 때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해서 성과가 시원치 않으리라는, 여러 사람의 사적인 충고”<sup>23)</sup>가 있었음에도 사상계사는 1957년 10월 10일 육당 최남선의 타계와 춘원의 죽음과 다를 바 없는 미귀환이 명확해지는 1957년 11월 23일 ‘육당과 춘원의 밤’을 개최한다. “육당 최남선 씨와 춘원 이광수 씨가 우리 문화에 남긴 족적을 회고하고 추념하는 의미”<sup>24)</sup>에서 이 행사가 개최되었음을 밝히면서 말이다.

---

다고 진술했을 뿐이고, 이와 유사한 발언은 조철의 진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철은 『동아일보』의 「죽음의 세월」 중 아홉 번째 연재 기사(『동아일보』, 1962.4.7, 이후 『죽음의 세월』, 성봉각, 1964로 증보 재출간)에서, 이광수가 했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본래 민족주의자이므로 공산당이 나를 싫어할 것이 사실이요. 그런데다 중병에 걸려 극도로 쇠잔한 이 몸이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들 무엇에 쓰겠소?” 조철 역시 이 말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명확히 밝혀놓고 있지 않은데, 적어도 박계주·곽학송의 전기 『춘원 이광수』는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이를 각색했다. 자본주의 체제라는 말도 그렇지만 유물사관까지 이광수가 민족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옹호했을 법하지만, 자본주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간 진술이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처럼 탈출과 귀순의 서사가 만들어 내는 이른바 반공서사와의 호혜성은 이후 그를 달리하여 논할 예정이다.

23) 함석현, 「육당·춘원의 밤은 가고」, 『신태양』, 1958.2, 159~160쪽.

24) 「육당, 춘원의 밤」, 『조선일보』, 1957.11.23.

이은상, 진학문, 주요한, 이병도, 김팔봉이 연사로 나선 이 ‘육당과 춘원의 밤’을 통해 두 사람의 복권은 그만큼 공적 권위를 배가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국가적 차원의 공적 복권에 더해 『사상계』라고 하는 지식장의 권위가 합쳐진 결과였다. 당시 오피니언 리더로 부상하던 『사상계』의 이러한 복권 움직임에 힘입어 출판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요구와 수요는 지식장과 불균등하게 접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출판시장의 식지 않은 인기 상품으로 대중의 독서욕을 자극하던 이광수에 대한 저변의 광범위한 선호가 『사상계』라고 하는 지식장의 권위를 매개로 본격적인 앞의 유통 체제로 들어섰다고도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보조를 맞춰 일찍이 이광수의 복권에 앞장섰던 주요한은 “만국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 측이 통고해온 소위 「납치인사 중 생존자 명부」 중에 춘원의 이름이 없다고 그의 별세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가 만일 자유세계에 남아 있을 수 있었더라면 그의 모든 과거를 종합하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일층 깊은 작품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그의 미귀환이 초래한 상실=손실을 일체화시킨다. 즉 “공산당의 중대한 민족적 죄악”이라는 것은 그에 따르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광수의 날카로운 붓”<sup>25)</sup>을 꺾게 만든 데 있다고 하는 사상과 정신의 무기로서 펜이 지닌 위력과 집단적 애도였다.

이광수의 개인적 상실을 민족(국가)적 손실과 합치하는 이 집단적 동일시의 언술은 펜으로서 민족(국가)을 지도하고 교화하는 문인(작가) 이광수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과 결부된다. 이것이 1962년 삼중당의 ‘이광수전집’ 발간을 계기로 하여 더욱 전면화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를 주요한은 1964년 「춘원의 못 다한 「심부름」」이라는 글에서도 재차 언명하게 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광수의 상실로 인한 민족(국가)적 손실은 그가 자유세계에 남아 있지 않은 7년(1957년 기준)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것으로 등치 내지 확장되어나간다. 이를테면 “우리 민족이 6·25동란으로 받은 모든 물질적 파괴보다도 춘원 한 사람을 잃은 것이 더욱 애통”하다

25) 주요한, 「춘원의 인간과 생애」, 『사상계』, 1958.2, 32쪽.

는 것이며, “이번에 전집을 편찬하면서 보니 단편인 『무명』 『육장기』”라든가 수필, 시와 시조들 또 그의 편지와 일기 등의 모든 것이 “더욱 문학적, 사상적 향기와 깊이가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종교소설 『사랑』 『원효대사』에서 한결음 더 깊이 들어간 작품이 나왔던들”<sup>26)</sup> 하는 예의 부재하는 이광수에 대한 짙은 아쉬움은 이른바 ‘펜’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상적·정신적 무기를 특화하는 문학의 특정한 분절화와 위계화를 정초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학의 특정한 분절화와 위계화는 곧이어 전개될 신문학 60주년의 문학사 기술을 통한 이광수 복권과도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 주요한이문인(작가) 이광수를 부각하며, 이광수 변절의 출발점으로 흔히 말해지곤 하는 상해에서의 귀국행을 “문학으로 봉공하는 것”(146)으로 의미 규정했던 것과 동계에서 문학사 기술은 문학의 이러한 특정한 분절화 및 위계화와 어떤 방식으로든 접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흙』의 속편을 자신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로 가는 또 다른 선택이었어야 한다는 친일의 문제는 신문학 60주년을 맞아 제기된 문학사 기술의 당대적 요청과 맞물려 1장에서 말한 ‘이광수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을 더욱 예각화한다. 신문학 60주년을 계기로 분출된 문학사 기술의 요청과 양상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광수 복권과 갖는 당대적 의미망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3장에서 이어질 것이다.

### 3. 문학사 기술과 근대적 기원, 그 편년사의 유희

1968년 신문학 60주년 행사는 한국문인협회(문협)의 주도로 행해졌다. 신문학 60주년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연대기상으로 그 원년은 1908년이 된다. 그렇다면 1908년의 무엇이 신문학 60주년을 가능케 한 배경이었는지가 또한

26) 주요한, 「춘원의 못 다한 「심부름」」, 『신사조』, 1964.1, 149쪽.

물어봄직하다. 이 단서는 신문기사를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문협은 최남선의 신시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발표된 것이 1908년, 신소설인 이인직의 「혈의 누」가 발표된 것이 1906년임을 상기시키면서 그 중간 해인 1907년으로 기산(起算), 회갑 행사를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는 시를 포함한 문학의 모든 장르를 망라, 하나의 합동 회갑연(回甲宴)을 꾸밀 계획이라는 것”<sup>27)</sup>이다.

이 신문기사의 전언대로라면 신문학 60주년은 순수하게 연대기상으로 1908년이 되어야 하지만, 최남선의 신시와 이인직의 신소설이 각기 1908년과 1906년에 나왔으므로 그 중간 해인 1907년을 신문학 60주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음력을 기준으로 한 회갑이 신문학 60주년이 되는 지극히 한국적인 계산법의 발로였다. 그 때문일까. 조지훈 등이 주축이 된 ‘한국신시육십년기념사업회(韓國新詩六十年記念事業會)’가 문협의 ‘신문학육십년기념사업’에 앞서 발족되어 따로 행사를 마련하는 행보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1907년과 1908년이 그 원년의 자리를 다투듯 오가게 된다.<sup>28)</sup>

이 긴장 끝에 문협의 신문학 60주년은 최남선의 신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와 이인직의 「혈의 누」를 절충한 1907년을 원년 삼아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신문학 60주년이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는 거족적 축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 문학인들만의 회갑연(回甲宴) 같은 인상을 주고”<sup>29)</sup> 있음을 비판한 것으로 봐서, 요란한 외형에 비해 실제 행사는 대중들의 이목을 끄는 데 그리 성공한 것 같지는 않다. ‘신문학 60주년 기념 심포지엄’(1968.6.29)에서부터 피날레를 장식한 ‘전국 문학인대회’(1968.11.20)의 굵직한 행사 외에 시화전, 전시회, 특히 정음사판 ‘신문학 60년 대표작 전집’(1~6권, 1968.12.6)의 출간 등이 행해졌다. “일부 문학인들의 회갑연”이라고 하는 곱지 않은 시선에도, 신문학 60주년 기념행사는 향후 한국 문학계가 담당해야 할 과제를 환기하는 데는 일조했다. 그

27) 「신시 발표 60주년 행사에 혼선 없게」, 『경향신문』, 1967.9.9.

28) 「내년으로 회갑 맞는 현대시 ‘한국신시육십년기념사업회(韓國新詩六十年記念事業會)’ 발기」, 『동아일보』, 1967.7.20.

29) 「신문학 60년의 전환점」, 『조선일보』, 1968.11.21.

중의 하나가 바로 문학사 정리 및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였다.

문협의 “신문학 60년을 정리하는 심포지엄”이나 『신동아』의 “신문학 60주년 기념 지상(誌上) 심포지엄”은 모두 “육당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비롯하는 한국 현대문학의 종합적인 정리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sup>30)</sup>음을 알려 주는 사례로 이야기되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의 이례적인 치사”하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전국문학인대회”의 결의서 또한 “① 내일의 한국문학은 주체성의 확립과 새로운 세계의식의 파악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② 현 사회에 미만하는 저속한 풍조와 정서적 가치의 고양을 쬐먹는 경향을 배격하고 ③ 창작의 자유 및 문학사적 재료에 대한 연구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sup>31)</sup>되어야 한다는 문학사 기술의 필요성을 적극 제창했다. 따라서 어떤 “들뜬 문학 행사보다는 그 쇼맨·십보다는 어느 연구실에서 신문학 60년의 문학사를 연구 정리하는 단 한 사람의 노력이 귀중하며 행사에 쓸 막대한 비용이 있으면 연구에 몰두하는 그 사람<sup>32)</sup>에게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별 이견 없이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신문학 60주년이라는 것 자체가 일정한 시간성을 전제로 한 연대기적이고 편년사적인 한 형태로서의 문학사 기술을 필연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굳이 ‘신문학’이라는 것에 대해 이처럼 요란을 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일부의 회의도 없지 않았지만, 신문학 60주년은 문학계 안팎의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그 기원, 즉 원년을 확정하려는 자기표현의 욕구를 동반하며 문학사 기술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게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문학 60주년을 맞아 분출된 이 문학사 기술은 현재가 아닌 과거가 현재를 대리하는 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이다. 신문학 60주년이란 그 후에 올 70주년, 80주년 등을 잠정적으로 내포하는 반면, 신문학 60주년을 계상할 수 있게 해주는 과거는 상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30) 「신문학 60년 정리 작업 기념사업의 현재」, 『동아일보』, 1968.7.2.

31) 「주체성 확립 다짐」, 『동아일보』, 1968.11.21.

32) 「여적」, 『경향신문』, 1968.11.22.

신문학 60주년을 틀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통합적 시간축의 가동은 과거의 기원, 즉 원년을 ‘확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신문학 60주년의 기념행사는 과거를 통한 현재의 재확인에 있다고 할 것이다. 기실 신문학 60주년이란 전술한 것처럼 1906년도 1908년도 아닌 1907년이라는 텅 빈 시간을 상징한 위에서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 신문학 60주년의 기념행사 와 병행된 문학사 기술은 1907년이라는 텅 빈 시간을 연속성을 지닌 균질적이며 일원화된 편년사로 재직조해갔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아일보』가 신문학 60주년의 기획기사로 연재한 「측면으로 본 신문학 60년」의 시리즈는 이의 단적인 예이다.<sup>33)</sup> 이 기획 연재의 제1회 타이틀은 “낮빛 검은 소년과 눈동자 노란 소년”이었다. 이 인상적인 구절이 가리키는 기원의 자리, 즉 원년의 자리는 낮빛 검은 소년 최남선과 눈동자 노란 소년 이광수였다. 여기에 덧붙여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신문학 60주년에 대응하는 이 문학사 기술을 국문학자가 아닌 영문학자 조용만이 맡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외국문학자들의 두드러진 활동을 감안하더라도, 총 30회에 이르는 이 연재물의 집필자가 조용만이라는 사실은 특기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이에 앞선 1964년에 『육당 최남선』(삼중당)을 출간한 바 있었고, 최남선과의 개인적 인연을 「육당의 풍모」(『현대문학』, 1962.12)와 「애뜻한 육당에의 회억」(『신사조』, 1964.2)으로도 남긴 바 있기 때문이다. 사적 인연의 그물망과 불가분하게 뒤얽힌 이 기원의 자리, 즉 원년의 자리는 예의 “지금으로부터 육십년 전인 1908년 11월에 최남선이 경영하던 신문관에서 잡지 「소년」이 발간되었고, 이 잡지에 육당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가 발표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문학이 일어나는 첫 번째 햇불”이라고 하는 최남선과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등의

33) 『동아일보』의 「측면으로 본 신문학 60년」은 1968년 1월 27일에 1회를 시작해 1968년 11월 2일에 30회 「전후문단 하(下)」를 끝으로 무려 1년여에 걸쳐 연재된 기획 특집이다. 언론사가 이처럼 긴 호흡으로 문학사 기술을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동아일보』의 자평이 꼭 아니더라도 적어도 문학사 기술에 한정해서 보자면, 언론사의 이러한 긴 특집은 그 이후로도 대단히 예외적인 사례에 속하는 것이었다.

단편소설을 발표<sup>34)</sup>한 이광수에게로 돌려지고 있는 것이다.

1908년을 기점으로 한 육당과 춘원의 이인시대 개막과 우리나라의 신문학을 이끌고 나간 선구자로 최남선과 이광수가 자리한다. 분명 신문학 60주년의 기념행사는 육당 최남선과 이인식의 그 사이 어디쯤엔가 위치해 있었던 데 비해, 이와 짝을 이루는 문학사 기술은 육당에서 춘원으로 직립하는 기원의 재설정이 행해진다. 그는 이를 자신만의 견해가 아닌 문학사가‘들’의 일반적인 입장임을 밝히는 것으로 그 기원의 자리를 ‘논쟁’이 아닌 ‘합의된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술적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적실한 표현을 빌리자면 전도된 ‘기원적 현재(originary present)’가 이른바 문학사가들의 권위에 힘입어 공인된 사실로 추인되고 있는 셈이었다.<sup>35)</sup> 이러한 참조와 참조의 자기 회귀적 레퍼런스들은 문학사 기술에 작동하는 특정한 분절과 위계화에 힘입은 결과였음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를 통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그 횡단면을 프리즘으로 하여 논해보는 것도 압축된 진술로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신문학 6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 외에 기념특집이라고 할 만한 장을 마련한 곳은 『현대문학』과 『신동아』의 두 지면이었다. “현대문학의 「한국현대소설사전」, 「문학관계기사재출판」, 신동아의 「신문화육십년」, 동아일보의 「문단측면사」 등 시리즈<sup>36)</sup>가 특별히 거론될 정도로 『현대문학』과 『신동아』는 『동아일보』의 「측면에서 본 신문학」과 궤를 같이하는 신문학 60년의

34) 「측면으로 본 신문학 60년 ①—낮빛 검은 소년과 눈동자 노란 소년」, 『동아일보』, 1968.1.27.

35)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상상의 공동체』, 윤행숙 역, 나남출판, 2002, 260쪽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구절로 이 민족-언어 공동체의 균질적이고 일원화된 시공간적 전도를 지적하고 있다. “민족의 전기를 만드는 작업은 관습적인 계보의 흥미로운 전도로서 기원적 현재(originary present)로부터 시작하는 죽음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가 말한 민족의 전기에는 문학사도 포함된다. 만약 이를 문학사에 대입시켜 본다면, 문학사의 연속성이란 이미 단절을 내재한 관습적인 계보의 흥미로운 전도로서 ‘현재의 기원’이 아닌 ‘기원적 현재’로 재구성된다.

36) 「68문화 난류와 한류 ②—회갑문단」, 『동아일보』, 1968.12.7.

정리를 마찬가지로 행하게 된다. 「한국현대소설사전」이나 「문학관계기사재  
재총람」도 그렇지만 『현대문학』은 위 기사에서는 따로 언급되지 않은 특별  
부록의 형태로 「신문학 60년 기념특집」을 마련했다. 이 제호하에 실린 총  
11쪽지의 글들은 『신동아』가 3회에 걸쳐 연재한 「신문학 60년 기념 심포지  
엄」과 나란히 상호 참조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대문학』은 1955년 6월부터 1956년 12월까지 1년  
여에 걸쳐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를 실으며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독보  
적인 행보를 보여준 바 있다.<sup>37)</sup> 이러한 자부심의 발현이었는지 신문학 60주  
년을 맞아 『현대문학』은 문학사든 측면사든 신문학사와 직접 연관된 특집을  
배치하기보다 특별부록으로 「신문학 60년 기념특집」을 통해 그 차별성을 피  
했다. 총 11쪽지의 글들 중 제일 첫머리를 장식한 정창범의 글은 강의시간  
의 설문 조사에 기대어 “우리나라 국민에게 오랜 세월을 걸쳐 강한 감명을  
주고 있는 격조 높은 문학작품은 없다”는 결론하에 신문학사라는 것이 과연  
쓰일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표한다. “지난 날 그렇게도 벽찔던 춘  
원의 호소력이 퇴색한 유성기의 잡음으로만 들리는 오늘날, 김동인, 염상섭,  
이효석, 김유정, 이상도 결국은 엄격한 뜻의 국민문학의 대표작가가 못 된다  
는 것을 생각하면 신문학 60년이 무색해진다”<sup>38)</sup>는 요지의 글이었다. 작고한

37) 조연현은 1955년에 연재하기 시작한 「한국현대문학사」를 통해 누구보다 앞서  
문학사 기술의 선편을 잡을 수 있었다. 적어도 신문학사에 있어서 『현대문학』의  
자부심은 유달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문학』과 같은 문학잡지가 아닌  
종합잡지인 『사상계』가 끼친 영향력은 어떤 면에서 더 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상계』는 1956년 8월부터 12월까지 김팔봉의 「한국문단측면사」를  
비롯해 백철의 숨은 노력이 빛을 발한 1958년 4월부터 1959년 4월까지 총 10회  
에 걸쳐 박영희의 「현대한국문학사」를 실었기 때문이다. 이에 뒤질세라 『현대문  
학』은 박영희의 「초창기의 문단 측면사」를 1959년 8월부터 1960년 5월까지 연재  
했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의 문학사 기술이란 이른바 문학사 혹은 측면사로 말  
해지는 공식과 비공식의 혼합물로 만들어졌다. 1968년 문학사 기술이 이러한 기  
존 문학사 기술의 관행과 레퍼런스들의 집약적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점은 이로  
부터 기인한다. 문학사 기술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광수에 대한 문학사  
해석을 통해 해석 주체들의 욕망을 검토한 논의로는 최영석, 「민족의 마모된 비  
석, 이광수 해석의 역사」, 『작가세계』, 2003.5를 꼽을 수 있다.

38) 정창범, 「한국대표작가론 ①」, 『현대문학』, 1968.1, 300쪽.

작가도 20~30대의 현역 작가도 그의 말에 따르자면 대표작가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는 신문학 60년에 필적하는 신문학사 기술에 대한 자기 회의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신문학 60주년에 걸맞는 문학사 기술에 대한 요구가 역으로 문학사 기술의 한계로 귀착되는 딜레마는 다음 필자인 천이두의 글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신문학 이후를 망라하여 대표작가 10명을 골라 언급해”달라는 편집자의 요청에 그는 “오늘날 삼류 시인의 작품에서도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는” “육당의 「해에게서 소녀에게」를 한국의 역사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신시사의 첫머리에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의 불가피성은 “「문학 없는」 대표작가들을 나열”하게 될 위험성을 뒤따르게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신문학사는 그 사조적인 흐름의 면에서 모방적 이식적 성격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일견 입화와 백철을 잇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몇 가지 우리 신문학의 특수성을 고려에 넣는”다는 조건을 달며, “월북한 작가들을 제외하고 골라보니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현진건, 이효석, 채만식, 이상, 김유정, 김동리, 황순원”<sup>39)</sup>을 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신문학 60년의 결산을 겸한 한국대표작가 10명의 명단은 이렇게 구성되 어진다. 외국 사조의 압도적 영향에 맞부딪힌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이 10명의 대표작가군은 그러나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어선 끝에 이 그룹의 일원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배제되어야 할 그룹인 ‘월북’ 작가군이였다. 가시적 선택 이전에 이미 배제의 역학을 구성하는(그래서 이 글에서조차 별다른 이견 없이 한 줄로 처리되는) ‘월북’ 작가군은 문학사 기술이 일정한 그루핑(grouping)에 따른 선별의 산물임을 말해 주고 있다. 신문학 60주년에 상응하는 한국대표작가군이 왜 하필 10명인가 라는 물음 이전에, 월북했지만 월북하지 않았다는 형용모순을 던지고 또 한 차례의 분류와 검열을 거친 후에 선정된 인물들이라는 사실은 문학사 기술에 작용하는 또 다른 이면을 드러낸다. 기실 축자적 의미대로라면 월북(越

39) 천이두, 「한국대표작가론 ②」, 『현대문학』, 1968.1, 304-305쪽.

北)은 ‘북한으로 넘어가다’를 단순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월북도 허용과 불허용의 경계선을 따라 문학사 기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분절과 위계화에 다름없었다.

몸은 불법의 경계를 넘었으되 정신은 월북하지 않았다는 몸과 정신, 더 엄밀히 말해 사상과 육체의 이분법이 10명의 대표작가군에 이광수를 포함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광수가 ‘월북’ 작가군으로 묶였다면, 신문학의 기원으로서 그의 자리는 보증될 수 있었겠는가 반문 가능하다. 문학의 특화를 통한 분절과 위계화는 적어도 ‘월북’ 작가군에 한해서만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문학 60주년과 맞물리는 문학사 기술의 이 특정한 그루핑의 거름 장치는 미귀환의 육체를 견인하는 정신(사상)의 우위 속에서, 이광수를 최남선과 함께 기원의 자리를 점할 수 있게 해주는 자격과 지위를 부여해주었다. 정창범이 말한 신문학사는 과연 쓰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 이전에 작동하는 이러한 자기 회귀의 레퍼런스들은 편년사의 유혹에 감춰진 기원의 환각과 반공의 냉전적 앞의 교착을 매개하고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문학』과 더불어 세 번에 걸쳐 지상(誌上) 심포지엄을 마련한 『신동아』의 두 번째 좌담회(토론)는 선우휘의 사회로 김동리, 백낙청, 백철, 전관용을 참석자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 좌담회(토론)의 주제는 「근대소설·전통·참여문학」이었는데, 백철과 김동리의 논전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백낙청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이인직의 『혈의 누』와 이광수의 『무정』 중 어느 것을 신소설(근대소설)의 기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기원설을 두고 백철과 김동리가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과 달리 백낙청은 이 기원설이 지닌 문제의식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에 이른다. 이인직의 “문학사적 공로라는 것은 주로 우리 생활어에 가깝게 썼다는 것이 되겠는데, 원래의 『혈의 누』의 문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텍스트와는 다르”며 더구나 “작품 내용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구소설의 걸작에 비해 떨어지고 또 우리말을 순화한다는 어문학사의 의미에서도 공헌한 바가

크지 않는데 이것이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도 “우리나라의 국문 또는 한문으로 된 옛 시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들에 비하면 떨어지고 문장으로서도 좋은 말이라고 하기 힘든데 이것이 획기적인 업적으로 내세워지고 받아들여지는”<sup>40)</sup> 것에 대해 마찬가지로 문제 삼고 있다.

이인직과 최남선의 『혈의 누』와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신기원(new beginning)을 이루는 “획기적인 업적”으로 간주하려는 데는 기원에 대한 강박을 내포한 전통 단절의 욕구가 자리하고 있음을 그는 예리하게 파고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광수의 기원의 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다. “신기원에 대한 숭배”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합의된 망각, 즉 집단적 기억상실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지금과 그때의 거리감을 발생시켜 그것이 마치 놀랄 만한 도약이자 변화”로 인식될 수 있는 집단적 망각을 통한 새로운 기억술의 재창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과거와 결별하고 가능한 한 옛 시대와 새 시대에 거대한 거리를 구축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욕구”가 “구질서의 비정당성과 후진성을 과장”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 반대급부로서 “신기원에 대한 숭배”<sup>41)</sup>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는 곧 신문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상 자체가 갖는 동일한 욕구의 소산일 수 있었다. 이 특정한 시공간 감각이야말로 이광수가 스스로를 “선조도 없는 사람, 부모도 없는 사람(어떤 의미로는)으로 금일금시(今日今時)에 천상(天上)으로부터 오토(吾土)에 강림한 신종족”<sup>42)</sup>으로 자처할 수 있었던 배경임을 떠올린다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전통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종의 자가당착”으로 인한 “자기혐오를 겸한 자아도취”(390~391)의 분열적 의식이 이광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한다고 백낙청이 지적했을 때, 이 평가는 이광수를 최남선과 함께

40) 「신문화 60년 기념 심포지엄 ②—근대소설·전통·참여문학」, 『신동아』, 1968.6, 390쪽.

41) John R. Gillis, “Memory and Identity: The History of a Relationship”, ed., John R. Gillis, *Commemo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4, pp.7~8.

42) 이광수, 「자녀중심론」,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1974, 37쪽.

기원의 자리로 끊임없이 되돌리려는 문학사 기술의 자기 전도이자 함정일 수 있음을 그는 경고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입각점에서, 그는 “이제 우리는 문학을 함에 있어 좀 세계적인 수준에서 작품 본위로 논할 때가 왔”음을 강조하며 “춘원의 세대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염상섭 같은 작가가 작가로서 낫다는 사실을 평가”(391)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최남선에 맞서는 한용운과 이광수에 대비되는 염상섭이 이 기원의 탈마법화를 거쳐 그의 민족문화론과 만나는 접점을 형성하게 된다.<sup>43)</sup> 피랍(납북)과 미귀환의 상징으로 몸은 월북했으나 정신(사상)은 월북하지 않았다는 공인된 허용의 선을 따라 남한사회로 연착륙한 이광수 복권의 움직임은 신문학 60주년을 계기로 분출한 문학사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와 맞물려 실질적인 물꼬를 터놓게 된다. 문학사 기술이 의도된 망각이든 그렇지 않은 과거와 결별함으로써 신기원을 획정하려는 자기 구성의 욕구에서 자유롭지 않는 한, 최남선과 함께 이광수는 언제든 이

---

43) 백낙청은 1966년 『창작과비평』 창간호에 쓴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을 비판하며, 『신동아』의 좌담회에서 피력한 견해를 1969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서 「시민문화론」으로 구체화한다. 그는 “육당의 「해에게서 소년에게」(1908)를 최초의 신시로 잡고 작년에 신문학 60주년 기념행사를 벌인 것은 주로 기념행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정말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은 아님을 전제한 후 대저 문학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신문학 최초의 〈이것〉, 최초의 〈저것〉을 들추는 일”(487)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1966년 자신의 견해를 부정하면서까지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최초’에 대한 강박이었다. 이것이 최남선이 아닌 문단 외부의 한용운과 이광수를 대신해 염상섭을 문학사의 중요한 인물로 꼽은 이유가 된다. 하지만 그는 시민문화론을 발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민족문화론으로 개념 전이를 피하는데, 이는 신문학 최초라는 기원 설정이 실은 친일의 문제와 깊숙이 연관된 것임을 인식한 바탕에서였다. 따라서 그의 민족문화론은 전통 부정과 단절에 정초한 신기원의 과도한 의미 부여가 식민 본국의 모방과 추종이라는 친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비판적 자의식의 산물이었음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소위 신문학사에 대응하는 대안적 문학사 기술의 일환이 민족문화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근거이다. 그렇지만 그는 최초라고 하는 기원에의 강박이 지닌 문제성을 인식했으면서도 근대의 편년사적 유혹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근대의 민족—언어 공동체의 편년사적 유혹은 신문학사와 또 다른 방식으로 그의 민족지적 계보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임순, 「1960~70년대 후진성 테제와 자립의 반/체제 언설들」, 『상허학보』, 2015를 참조.

기원의 자리로 소구되거나 환원될 것이다. 이 편년사의 유혹이 식민(주의)화로 시작된 근대와 냉전의 세계질서 및 반공과 어우러져 문학적 공(功)과 정치적 과(過)라는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자장을 맴돌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이유이다. ‘이광수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이란 바로 이 이광수 복권을 바라보는 우리 안의 집단적 (무)의식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광수 복권의 딜레마와 남겨진 문제들 — 결론을 대신하며

이광수 복권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 사회에서 이처럼 한 인물의 네이밍(naming)이 문제시되는 것도 드문 경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광수는 김구와 더불어 한국 사회의 매 고비마다 찬반의 대립을 오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예외적이다.<sup>44)</sup> 하지만 김구와 더불어 이광수에 대한 논란은 별개의 차원이 아닌 상호 연관된 문제임을 1장에서 논한 최인훈의 『서유기』는 익히 우리에게 알려준 바 있다. 『흙』의 허송의 삶을 이광수 자신이 식민지 말기에 직접 구현했다는 제국 헌병의 논리에 맞서는 『흙』의 속편을 자신이 썼어야 했다는 이광수의 입을 빌린 자기 참회와 고백은 이광수가 아닌 이광수를 경유한 지식인의 당면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최인훈의 『서유기』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말했다고 가정되는 『흙』의 속편이란 김구가 있는 상해행의 티켓이며, 이 티켓은 지식인이 머물 자리를 실현되지 않은 미래형의 과거로서 제시한다. 이 실현되지 않은 미래형의 과거는 이광수의 친일과 결부되어 ‘이광수 복권’을 둘러싼 해소되지 않는 쟁점과 물음을 던져주었다. 이 문제의식이 1장의 ‘이광수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들을 형성한다. 2장은 이광

44) 김구라는 인물의 네이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임순, 「1960년과 김구 : 추모 · 진상규명 · 통일론의 다이어그램」, 『한국학연구』, 2014가 언급한 바 있다.

수 복권이 어떠한 역사적 경로와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는지를 피랍(납북)과 미귀환으로 독파해보았다. 정전협정(1953)-제네바회담(1954)-국제적십자사를 통한 피랍(납북)자 명단 통보와 답지(1956~1957)의 전 세계적인 흐름과 결을 같이 하는 속에서, 이광수는 반공의 상징이자 미귀환의 표상으로 한국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었다. 1962년 삼중당의 ‘이광수전집’ 간행을 계기로 한 작가(문인) 이미지의 강화는 1968년 신문학 60주년을 맞아 분출된 문학사 기술과 맞물리며 이광수 복권을 정당화하는 물꼬를 터주었다. 이것이 문학적 공과 정치적 과라고 하는 이분법을 생성하는 이른바 문학사 기술의 편년사적 유혹이다. 신문학 60주년에 상응하는 문학사 기술이란 결국 과거를 획정하려는 전도된 ‘기원적 현재(originary present)’에 다름 아니었으며, 이것이 그 기원이자 원년의 자리에 최남선과 함께 이광수를 끊임없이 되돌리려는 왕복운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6년 좌절되기는 했지만 문협은 최남선과 이광수 문학상을 제정하고자 했다. “이들의 ‘친일행위’는 인정하되 ‘작품’은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이 문학상 제정의 이유였다. “두 사람의 친일행위는 분명 비판도 하고 반성도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신문학 100년의 층이 굉장히 얇은데 두 분의 작품까지 들어낼 순 없”으며 “풍성한 층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평가”<sup>45)</sup>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원, 즉 원년을 획정하려는 이 문학사 기술의 강박은 과거에 대한 단절과 분리를 내장한 채로 최남선과 함께 이광수를 소구하고 환원하는 내적 자양분이 되고 있다. ‘이광수적인 것’을 둘러싼 물음과 쟁점들이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문학사 기술의 기원에 대한 탈마법화는 문학의 특정한 분절과 위계화의 역사성과 정치성을 나아가 탈근대의 지평을 아우르는 자기성찰과 모색의 동시적인 과제임을 환기하는 것으로 이 글의 마지막을 대신하려 한다.

45) 「문효치 문협 이사장 “‘육당·춘원문학상’ 계획대로 한다”, 『머니투데이』, 2016.8.15.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곽학송 원작·각본, 윤색 이철향, 「<춘원 이광수> 심의본」, 문화공보부, 1968.
- 곽학송·박계주,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 권용태, 「한국의 능동인 ①—「상록수」의 「채영신」, 『청맥』, 1966.10.
- 김현, 「위선과 패배의 인간상」, 『세대』, 1964.10.
-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4」, 『문학과 지성』, 1972.겨울.
- 김현 편저, 『이광수』, 문학과지성사, 1977.
-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비평』, 1969.여름.
- 이광수, 『이광수전집 10』, 삼중당, 1974.
- ,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Ⅱ』, 평민사, 1995.
- 이정화, 『아버님 춘원』, 문선사, 1955.
- 정참범, 「한국대표작가론 ①」, 『현대문학』, 1968.1.
-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1957.
- 조철, 『죽음의 세월』, 성봉각, 1964.
- 주요한, 「피랍인사문제, 여섯 번째의 겨울은 닥쳐오는데」, 『경향신문』, 1955. 11.23.
- , 「춘원의 인간과 생애」, 『사상계』, 1958.2.
- , 「춘원의 못 다한 「심부름」」, 『신사조』, 1964.1.
- 최인훈, 「문학은 현실비판이다」, 『사상계』, 1965.10. 최인훈, <춘원 이광수>, 대한연합영화사, 1969.
- , 『서유기』, 최인훈 전집 3, 문학과지성사, 1977.
- , 『길에 관한 명상』, 최인훈 전집 13, 문학과지성사, 2010.
- 함석헌, 「육당·춘원의 밤은 가고」, 『신태양』, 1958.2.
- 그 외 『경향신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사상계』, 『신동아』, 『창작과비평』, 『청맥』, 『현대문학』, 『희망』 참조.

## 2. 단행본

- 박헌호 편저, 『센티멘탈 이광수』, 소명출판, 2013.
- 신경완 증언, 이태호 저, 『압록강변의 겨울—납북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 다섯수레, 1991.
-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 『상상의 공동체』, 윤희숙 역, 나남출판, 2002.
-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국민주의의 포이에시스』, 이규수 역, 창비, 2003.
- John R. Gillis ed., *Commemo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4.

## 3. 논문

- 공임순, 「1960~70년대 후진성 테제와 자립의 반/체제 언설들」, 『상허학보』, 2015, 75~116쪽.
- 권명아, 「문예영화와 공유기억(commemoration) 만들기」, 『한국문학연구』, 2003, 123~148쪽.
- 박유하, 「민족계몽과 예술지상주의 사이」, 『한민족문화연구』, 2014, 607~646쪽.
- 안서현, 「흔들리는 이름」, 『상허학보』, 2015, 11~47쪽.
- 최영석, 「민족의 마모된 비석, 이광수 해석의 역사」, 『작가세계』, 2003.5, 40~64쪽.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einstatement of Kwangsoo Lee and Literary History

Kong, Im-soon

Although the attempt was frustrated, Munhyup(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made some controversy by announcing the establishment of Choi Nam-son and Kwangsoo Lee Literary prize in 2016. Perhaps Kwangsoo Lee is one of the rare people with Kim Gu whose naming is problematic in the Korean society. Choi In-hun introduced Kwangsoo Lee in his works, Seo Yu Gi through the imagination and ideas of characters. Here he showed Kwangsoo Lee' self-confessions and confessions that he had to write the sequel of Soil against the logic of military police of the Japanese Empire that Kwangsoo Lee personally embodied the life of Soil' Heo Sung in the late colonial period. The questions and issues surrounding 'Kwangsoo Lee-likeness' in Chapter 1 mainly focus on these contents.

Chapter 2 is explained what historical path and process led to Kwangsoo Lee's reinstatement with kidnapping and being not returned from North Korea. In the global trend of Armistice Agreement(1953)-Geneva Conference(1954)-Notification and reply to the list of abductees through the International Red Cross(1956~1957), Kwangsoo Lee is a symbol of

anti-communism and being not returned from North Korea was able to make a soft landing in Korean society. Strengthening the image of the writer based on the publication of ‘The Complete Works of Kwangsoo Lee’ from Samjungdang in 1962 led to the justification of the Kwangsoo Lee’s reinstatement. This is a temptation of chronicle according so-called literary history producing a dichotomy of literary accomplishments and political errors. New literary history corresponding to the 60th anniversary of new literature was nothing more than an inverted “originary present” to finally define the past and this also appeared as a reciprocal movement Kwangsoo Lee with Choi Nam-son that has been constantly turning to the origin and place of the first year. Therefore, the questions and issues of ‘Kwangsoo Lee-likeness’ including Kwangsoo Lee’s reinstatement is that it examines the history and politics of this self-obsession about the origins of literary history and needs to be self-reflection containing the post-modern horizons.

- **Keywords** : reinstatement of Kwangsoo Lee, kidnapping and being not returned from North Korea, Kwangsoo Lee in Seo Yu Gi of Choi In-hun, the 60th anniversary of new literature, an inverted “originary present” of literary history, Kim Hyun, Paik Nak-chung, Choi Nam-son and Kwangsoo Lee Literary prize

접 수 일	2016년 09월 18일
심 사 일	2016년 11월 16일
게 재 확 정 일	2016년 12월 07일